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최근에 저는 더는 거동하실 수 없어 침대에서만 누워 생활하시는 고령의 선배 수녀님들 중 한 분을 찾아보았습니다. 주름 가득하지만 평화로운 수녀님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 수녀님의 전 생애가 담겨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녀님께서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시며 큰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필요한 게 ……, 필요한 게 있는데 …….' 간호사가 뛰어와서는 수녀님께 뭐가 필요한지 여쭙었습니다. 수녀님께서 대답하셨지요, 명확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사랑'.

그것은 바로 수녀님이 이제 저물어가는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여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었지요!

사실, 사랑은 모든 인간 삶의 고통과 걱정 그리고 행복의 원동력이자 출발점이지요. 성 요한 사도는 사랑이 하느님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1 요한 4,7.8).

이번 동반자 소식지 제 3 호는 바로 이 사랑, 수 만 가지 형태로 펼쳐지는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 합니다. 지난여름 한국, 룩셈부르크, 벨기에 동반자들 간의 첫 만남에서 느꼈던 형제적인 사랑. 행복의 근원이자 서로를 이어주는 하나의 같은 영성을 사는 경험.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하느님 자비의 진정한 증인인 칠레 평신도 벗들이 사는 활력이 넘치는 연대. 이 소식지는 사실 국가와 문화를 초월하여 우리 모든 동반자가 사는 풍요로운 삶의 지극히 일부분만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지가 드러나는 성탄이 가까워 오는 지금, 우리가 바칠 예물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 안에 하느님 사랑의 나라가 현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원의와 한없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베로닉 수녀(총참사위원, 수녀회 동반자 총책임)

수녀회 영성으로의 순례여정

수녀님들께서 사랑으로 나누어 주신 '영적 유산'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시간 맞추어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한 기쁘고 설렌 영적 여정이었다.

■ 400 여 년 전에 지어졌다는 **트롱드 성당**. 지하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신비롭고 아름다운 시간여행, 하느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 **라스빌 수녀들의 샘.** 옛 수녀님들의 집 앞 샘물 소리를 들으며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빨래터의 맑고 드높은 푸르른 하늘, 그분들 삶의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 온다.

■ **브릴레.** 마을로 향하는 시골길에 펼쳐진 하느님께서 수 놓으신 이름 모를 꽃들과 포도나무들,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운 구름은 모두가 하느님께 찬미 드리는 시편의 한 구절인 듯했다.

■ **기도방과 성당, 옛날의 유치원,** 그 유치원 출신 읍장님의 살아있는 증언 등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 속에 스며들게 했다. 브릴레 분원 두 수녀님의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환대와 정성 어린 음식에서 우리는 또 환대의 예수님을 만났다.

■ **틀 주교좌 성당.** 300 여 년 전에 바틀로 신부님께서 밟고 다니시고 만지셨던 제의실을 보며 깊은 전율이 몰려왔다. 신부님의 바람대로 성당 열주회랑 안에 안장된 묘지 앞에서 드린 기도와 노래는 엄숙하고 가슴 울리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강한 느낌에 충만함과 기쁨이 가득하였다. 영적 여행을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기도와 지도로 도와주시는 우리 수녀님들과 프랑스 수녀님들께 감사드렸다.

■ **이역만리 떨어진 한국에서 온 동반자들을 만나시는 신부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 **요셉 양로원과 모원.** 오랫동안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셨을 수녀님들의 마음을 떠올렸다. 사랑과 정성을 다하시는 수녀님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고 느끼면서,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의 영적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과도 잘 나누어서 수녀회의 영성이 대대로 잘 이어나갈 수 있기를 하느님께 청하였다.

■ **보랭의 성모님 순례.** 따뜻한 수녀님의 환대, 꼭 집에 온 듯한 편안했다. 보랭의 성모님을 가슴에 와 닿도록 감동을 주는 설명을 해주신 세레자 요한 수녀님. 영적인 치유와 회개의 경당은 앉아만 있어도 저절로 목상이 된다. 오래오래 머물고 싶고 꼭 다시 찾아와 기도하고 싶다.

■ **룩셈부르크 관구 방문.** 현지 동반자들의 진심 어린 안내로 시내를 관광하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맛난 음식 대접을 받으며 관구장 수녀님, 여러 수녀님들, 현지 동반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환대에 “동반자”로서의 또 다른 사명감을 느꼈다.

한국 동반자들

‘가족 안에서’

유럽 하늘 아래 단 하나뿐인 준회원 그룹이라는 사실, 다른 준회원들과 교류할 기회조차 없다는 사실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2017년 8월 8일,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한국의

동반자들을 기다리고 맞이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이 만남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에 하나의 지표이자 매우 특별한 선물이 되었다.

'룩셈부르크 파리 광장에 도착한 한국 동반자들을 보았을 때, 마치 우리 가족이 도착한 것처럼 느껴졌어요'라고 우리 중 누군가가 말했다. 유럽 관구집에서의 뜨거운 현대, 룩셈부르크 옛 도시 관광 그리고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누었던 저녁 식사의 기억들을 뒤로하고 떠나는 순간이 되었을 때, 마음이 순간 울컥해졌다. 매우 짧고 뻘뻘했던 일정이었지만, 마치 예전부터 알았던 것처럼 서로 마음이 통했던 것이다. 우리는 서로가 참으로 하나의 '바틀로 가족'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체험했다. 가비 수녀님이 주신 동반자 십자가를 우리는 함께 일치의 표시로 자랑스럽게 목에 걸고 다녔다. 하지만, 무엇보다 점차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같은 정신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또한 하나의 특별한 '상호문화적' 경험이었다. 짧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 대해 놀라고 감탄해 마지 않았다. 또한 몸짓, 눈짓으로만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소중한 상호문화의 '다리'가 되어준 영어와 통역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실 몇 명에 불과한 우리는 한국 동반자들의 숫자에 놀라기도 했지만, 한국 동반자들을 환대하기 위해 함께 준비하던 시간이 얼마나 우리를 일치시켜 주었는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다. 또한 '주고 받는' 기쁨도 맛볼 수 있었다.

2018년 총회를 향해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의 행렬과 더불어 우리도 한국에서, 칠레에서, 룩셈부르크에서 함께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한국을 꼭 방문해달라는 한국 동반자들의 초대도 마음속에 잘 간직할 것이다. 누가 알겠는가?

룩셈부르크 준회원 그룹

연대

가족들 그리고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내 안에는 연대의 정신이 움텄다.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물질적 도움뿐만이 아니라 교리교육이나 환자 돌봄 같은 봉사를 통하여 동반하고 들어주면서 연대의 정신을 살고자 했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는 마침내 나의 이 성소를 온전히 채워주시고 내 꿈을 이루어주셨다.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벗'으로서 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증거하며, 우리 본당의 사회사목에 투신하고 있다. 가끔은 일이 힘들기도 하고, 특히 고통받는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더 해줄 수 없는 나 자신의 무능함을 느낄 때 화가 나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더 가지지 못한 이들과 나누는 많은 사람의 체험담은 나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준다.

칠레는 연대의 나라, 용기의 나라다. 지진과 홍수 그리고 산불이 일어날 때마다, 칠레 국민들은 바로 이 정신 안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고 나는 믿는다.

이 땅의 딸로 태어난 것에, 수도회의 평신도 벗들로 살아간다는 것에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이 땅에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다같이 꿈꾸어 보자.

그라시엘라 야네즈(Graciela Aguayo Yáñez), 칠레 탈카우아노 평신도 벗들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싶었다. 겨우 일곱 달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아기였을 때 화재로 인해 심한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의학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침대에 누워만 지냈던 엘레니타와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 엘레니타는 항상 혼자였다. 상처를 치료하다가 부패가 진행된 것을 발견했다. 상처에서는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엘레니타의 몸을 반대편으로 돌려 눕힐 수 있었는데, 넓적다리뼈가 흰히 드러났다. 엘레니타는 두려움에 내 다리에 꼭 달라붙었고, 내 몸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의 상처를 치료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후, 고통스러워하던 엘레니타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함께 있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또한 2007년 1월 17일, 1년 반도 채 안 되는 짧은, 그렇지만 행복했던 결혼생활을 뒤로하고 갑작스럽게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삶의 여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수녀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 수녀회의 평신도 벗들 모임에 함께 하게 되었고, 이 모임에서 나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삶의 버팀목을 발견했다.

테레지타 베라(Teresita Ganga Vera), 칠레 산티아고 평신도 벗들